

2023 Vol. 22

ISSUE & FOCUS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COLUMN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시의 대응전략

20

02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45

03

R&D 성공사례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과제 추진

48

04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시의 대응전략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칼럼(COLUMN)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시의 대응전략

세종연구개발지원단

I. 서론

1. 서론 : 정보보호산업의 변화와 세종시의 대응

- 최근 정부는 ICT 정책과 관련하여 규제시스템 혁신, 지적재산 보호 강화, 벤처생태계 구축, 디지털 신산업이용자 보호 등 규제 혁신 및 R&D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초격차 전략 분야와 사이버보안 분야 R&D 집중, 융합형 R&D 활성화 및 지능형 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원천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및 응용기술에 초점을 둔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인력양성 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양자·위성 보안산업 등 관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과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 한편 미래전략산업인 정보보호 분야는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딥러닝 기술의 오류 및 오남용을 방지하는 AI 보안, AI 기반 지능형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접근 관리를 위한 데이터 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역내 구축된 데이터 관련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관련 B2G 시장을 위한 기술개발, 중장기적으로는 B2B와 B2C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이 필요함

2. 메가트렌드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화

-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는 디지털 대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순기능만큼이나 커진 역기능 문제도 발생함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산업, 문화,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를 유발함
 -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공급망 가치사슬이 재편됨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화함

-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은 사람, 조직 및 기계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디지털전환에 필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연결성 지속 개선하고자 함
 - 데이터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 '18년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국제, 지역 및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의 수가 크게 증가함
- 정부는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안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AI 기술을 융합하여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보안산업 육성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와 메타버스, 무인 점포 등 신규 비대면 서비스에 대응하여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적용
 -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ICT 융합 환경에서의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
- 정책 이행 측면에서 디지털 정부의 정책 가속화를 위하여 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함
- 초개인화·민관협업을 위하여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술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보호 산업에 관해 주요 국가와의 데이터 관련 기술격차 지속
 - 국내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 ~ '23년)(2019.01)을 발표함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산업군의 부흥 지원을 위한 '융복합형 정보보호 R&D 실증단지' 조성 필요
 - 수도권 인구 과밀화 억제 및 국가 균형발전의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 및 대전·공주·천안·청주 인근 도시들과 연계형 산업발전(정보보호) 전략 도입 필요함

< 주요국 정보보호산업육성 정책 >

국가	내용
미국	2003년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모든 정부부처 수준에서 사이버보안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강조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발표)
독일	2021년 '독일을 위한 사이버 안보 전략 2021'을 의결하고 연방 정보기술 안전청 확대 계획을 발표, 기존 사이버안보 전략에 경제·학계·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화 발전전략을 제시
중국	2020년 네트워크 안전심판법을 시행하여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및 구매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시 보안 심사를 받을 정책을 수립

<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비전 및 목표 >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비전 및 목표

비전

튼튼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전환 구현

목표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2025년 20조원 달성

※ '20년 11.9조원 → '25년 20조원

추진
전략

[전략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新시장 창출

- 1 인공지능(AI)기반 보안산업활성화
- 2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 개척
- 3 융합보안 산업 저변 확대

[전략2] 글로벌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

- 1 신성장 리딩 기술·제품 사업화
- 2 정보보호 초기기업 성장 지원
- 3 정보보호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략3]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확충

- 1 정보보호공시제도 의무화
- 2 정보보호인증 고도화
- 3 중소기업·지역 사이버보안 안전망 확충

[전략4]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

- 1 정보보호 新기술 개발
- 2 디지털 인프라 보안기술 확보

* 자료 :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2022.2.

- 2022년 9월에는 디지털이 지닌 전략적 가치와 혁신 유지 및 사이버보안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 선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공동 발표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능동적 대응 협력 의지를 강조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

- 세계적으로 대형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와 투자가 늘어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며, PC부문이 50%, IoT 27.4%, 모바일 네트워크가 16.1% 순으로 전망함

* 사이버보안 세계시장은 2021년 2,270억 달러에서 2026년 4,001억 달러로 연평균 12% 성장 예측

<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21~'26)
세계시장	202.7	227	254.2	284.8	318.9	357.2	400.1	12

자료 : Cyber Security Market size 2022-2030 (RESEARCH AND MARKETS, 2022.4.)

<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21~'26)
국내시장	12.8	14.36	16.15	18.23	20.66	23.5	26.48	12.7

자료 : ICT R&D 기술로드맵 2025-차세대보안-블록체인(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12.)의 자료로 재가공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비대면 환경과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 데이터 보호 등에서 기술개발이 증가함

● 세종시의 지역과 사회 문제해결 측면에서의 적합성

- 세종시는 자족적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족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인근 충청권 도시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산업분야의 마스터플랜 필요
-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의 첨단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필요
- 정부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R&D 생태계를 세종시 중심으로 조성 필요

- 정보보호 기술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보호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 개발과 산업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 정보보호 기업들의 협력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 연구를 위한 신규 인력의 유입을 위한 투자도 필요함
- 세종시 내 정보보호 인력양성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교(고려대 세종), 데이터보안 ITRC센터(고려대 세종)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조직 유치를 통한 산학연계 강화가 필요, 기존 역내 인력의 사이버보안 분야를 재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지역 내 거점대학 및 인근 지역(대전 등) 연구소 등 연계를 통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신기술 개발 및 선제적 적용이 필요
- 세종시는 현재 정부부처 14곳이 이전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해 ‘세종시가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최적지’

< 세종시 정보보호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

(단위 : 개, 명, %)

구분	연도별 현황					CAGR (’17~’21)	역내비중 (’21년 기준)	입지계수 (’21년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체(개)	64	89	134	418	501	67.27	1.50%	1.2
종사자(명)	686	827	1,062	1,735	2,199	33.81	1.20%	0.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주 : 통계조사기준의 변경(2016~2019년은 조사기준, 2020~2021년은 등록기준)

II.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시의 대응전략

1. 정보보호 R&D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업·기술·인력양성 추진

- 세종시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 행정데이터, AI/빅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수요와 정보보호 산업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차별적 우위가 가능하여 세종시 중심의 국가적 사이버보안 핵심과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한 R&D 선도 및 생태계 조성 전략 필요
-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47개 산하 소속기관 24개, 국책연구기관 16개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도시로 정보보호산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R&D의 수요 충분
-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역 특화 인재양성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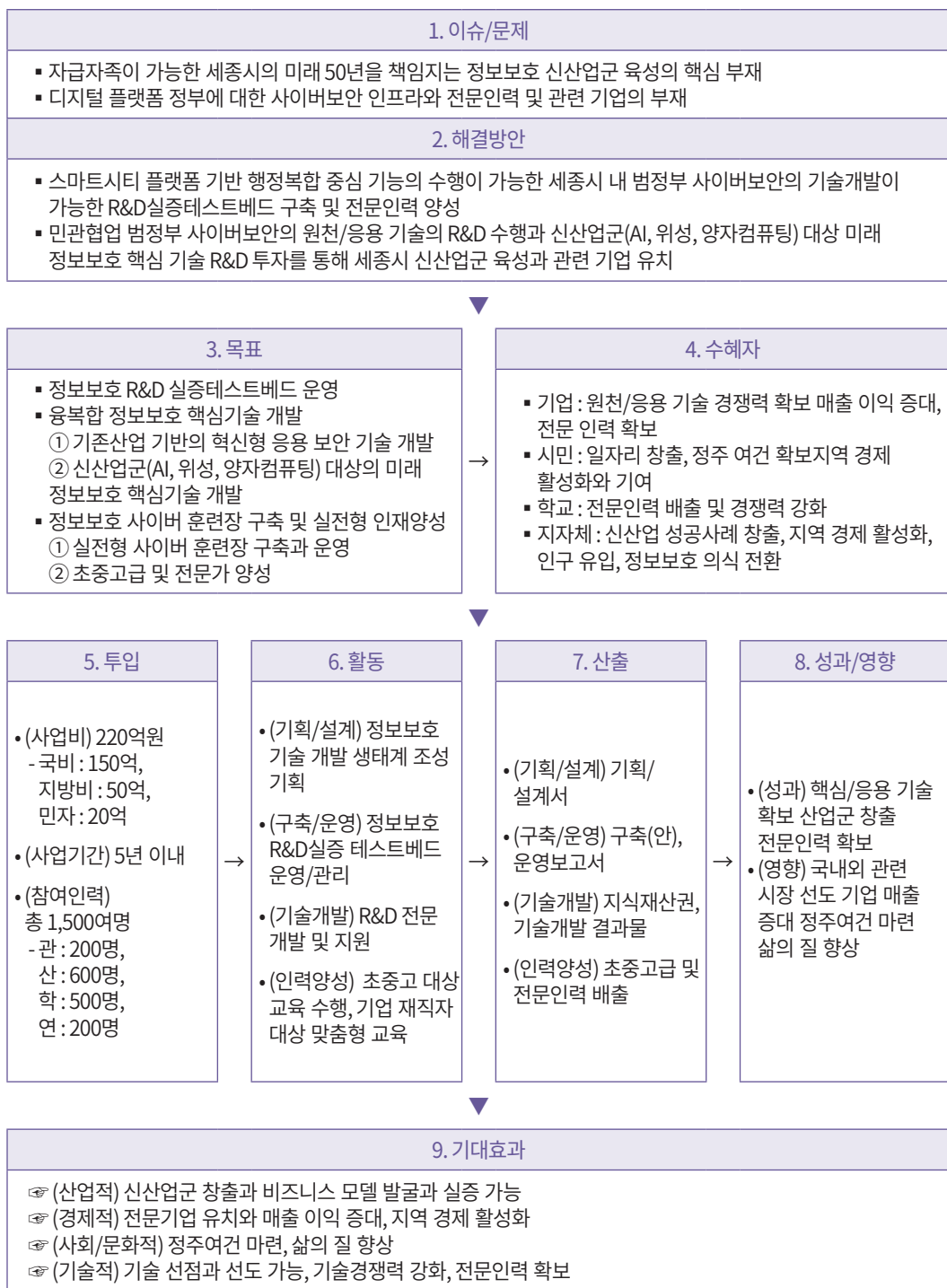
● 기존산업의 기반혁신형 응용 보안 기술개발과 신산업군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R&D 선도

- 기존산업 기반 혁신형 응용 보안 기술개발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 행정데이터를 뒷받침하는 범국가적 사이버보안 공격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혁신형 응용 보안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에 최선의 정보보호 기술을 이용하여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주도형 기술개발이 필요함
- 구축형/클라우드형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전분야에 걸친 혁신형 보안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AI 기반의 보안 위협 탐지와 예측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대단위 빅데이터 분석과 유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보안기술의 R&D를 통한 실증과 상용화 및 관련 기업의 매출 이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신산업군(AI, 위성, 양자컴퓨팅) 대상의 미래 정보보호 핵심 기술개발 : 세종시의 미래 50년을 대비하여 신산업군에 대한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의 선점과 선도 및 시장에서의 우위 차지 가능
- 지역의 정부출연연과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도시에 적용 및 실증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구축 가능

● 정보보호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운영 및 실전형 인재양성

- 정보보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구축과 운영 : 범정부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한 현장형 실습과 다양한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훈련장 앵커시설의 구축 및 공격
- 방어 형태의 임의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 증대를 위한 인재 양성형 훈련 운영
- 초중고급 및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분하여 사이버훈련을 수행하되 고급과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보보호 실전형 인재 양성 : ICT 관련 전공자, 경력 5년 이상의 개발 또는 시스템/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업무 전환, 재취업 등의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습득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수행
- 과정에 따라 산학연관 취업 연계형 중장기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기업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
- 기업의 관련 기술과 시장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소재 기업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인재 양성 수행

◆ 사업 논리 개요(예시)



2. 사업 구성 및 활동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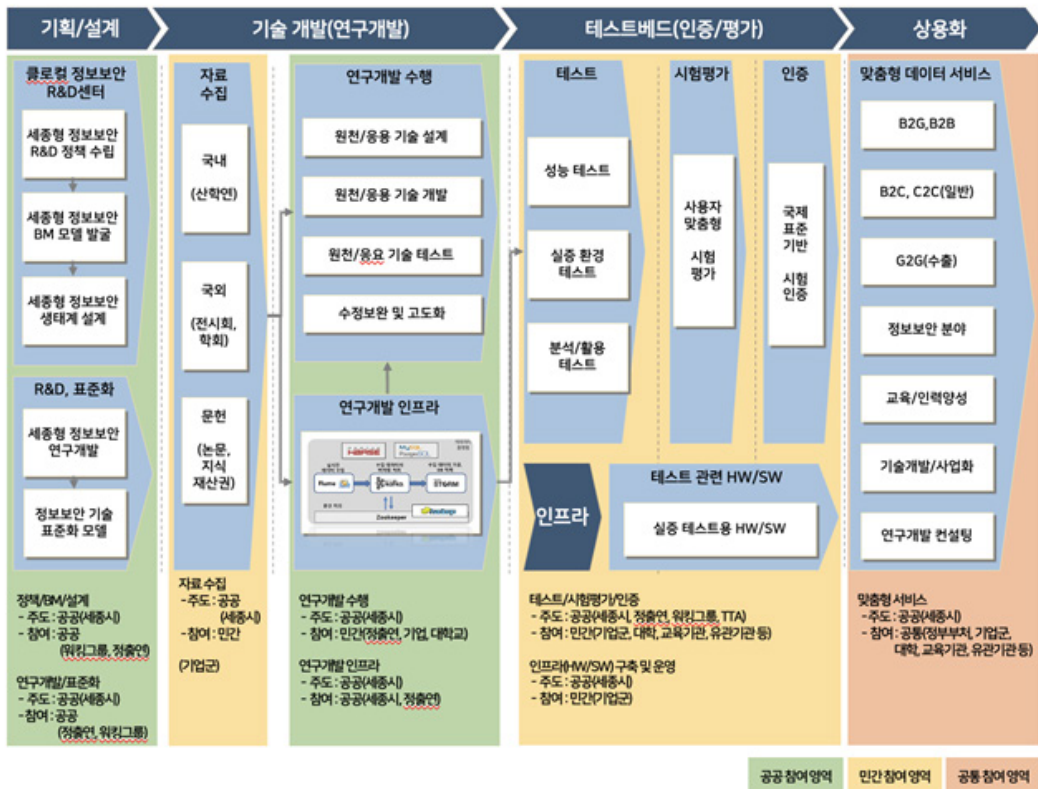
■ (세부 사업 계획1) 정보보호 R&D 실증테스트 조성 및 운영

● 정보보호 R&D 실증테스트베드 운영

- 세종시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 행정데이터, AI/빅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수요와 정보보호 산업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차별적 우위가 가능하여 세종시 중심의 국가적 사이버보안 핵심과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한 R&D 선도 및 생태계 조성 전략 필요

● 정보보호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조성

- 세종시에 적합한 정보보호 R&D에 특화된 기획, 자료 조사, 연구개발, 시험인증용 실증테스트베드, 사업화, 컨설팅까지의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센터 건립 및 시험 운영용 전문 테스트베드 운영



<정보보호 R&D실증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형 전주기 지원모델(안)>

■ (세부 사업2) 혁신형 응용 보안기술 및 미래형 핵심 보안 기술 개발

- (혁신형 응용 보안 기술 개발) 기존 산업군 또는 범정부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및 개인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침해, 노출 등과 같은 주요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상용화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한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국가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분류체계’와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11대 핵심기술과 37개 세부 기술 집중 개발

< 정보보호 R&D 핵심기술 >

중분류	핵심기술	내용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 지원 - 세부기술 : 개인정보 동의 관리 플랫폼 기술, 개인정보 동적 동의 관리 기술
	②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22년부터 기술개발 진행 중	- SNS, 온라인 쇼핑 등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활동 기록 수집이나 추적 방지 - 세부기술 : 검색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및 실증, 개인 위치정보 자율통제 기술, 온라인 활동기록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③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거래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 세부기술 :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
유·노출 최소화	④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22년부터 일부 개발 진행 중	-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텍스트·영상·음성에서 개인정보 탐지 - 세부기술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기술, 영상데이터에서 개인 식별기술, 음성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및 개인정보 탐지기술, 혼합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통합 탐지기술
	⑤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분해하여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기술 : 이미지 기반 신분증 파편화 및 결합활용 기술, 의료영상데이터의 영상·환자정보 분리 및 복원 기술, 재결합 가능한 영상데이터 분리기술
	⑥ 비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존기간에 따라 자동 파기, 텍스트·영상·음성에서 원하는 개인정보만 파기 등 - 세부기술 : 개인정보 자동 파기기술, 대화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선택적 대체 및 삭제 기술, 개인정보 일괄 파기 기술(관계된 정보 포함), 영상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삭제 기술

안전한 활용	⑦ 차세대 가명·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22년부터 일부 개발 진행 중	- 안전한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가명·익명처리와 결합 지원 - 세부기술 :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등 통계 또는 암호기반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의 가명·익명화 효능 측정 기술, 동형암호 및 개인집합교차 기반 결합률 측정기술, 다중 관계결합키 생성 기술, 결합키 안정성 평가기술, 결합키 보존형 가명정보 안전 결합기술, none-TTP모델 기반 가명정보 자율결합 기술
	⑧ 가명·익명 정보 안전성 평가	- 가명·익명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측정하여 안전성 평가 - 세부기술 :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공격·검증 모델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재식별 임계치 측정 기술, 익명·익명정보 재식별 방지 기술
	⑨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인공지능 학습 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 세부기술 : 음성 개인정보 변조기술, 통계 보존형 수치데이터 재현기술, 형태 보존형 재현데이터 생성기술, 재현데이터 자동생성 AI 모델 기술
	⑩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세부기술 : 영지식증명 기반 개인증명 기술, 동질집합 기반 연합학습 기술, 프라이버시 기반 AI 큐레이션 기술
	⑪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 세부기술 : 마이데이터 신뢰 전송 기술, 활용 지원 기술 및 통합 관리 플랫폼

자료 : 개인정보위원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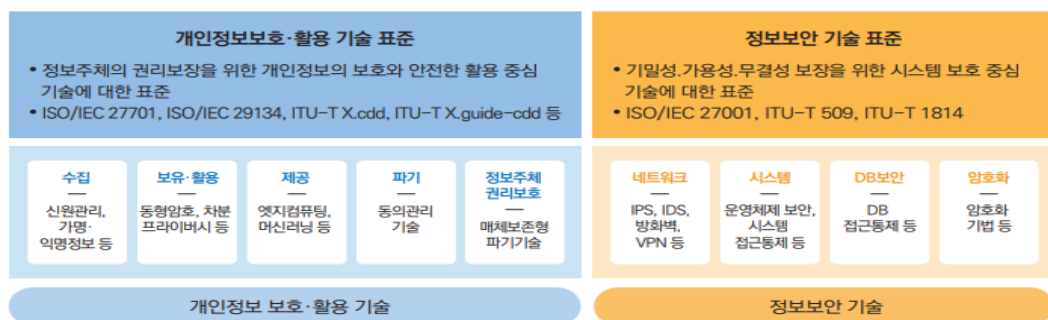
- (미래형 핵심 보안 기술 개발) 위성보안, 양자컴퓨팅 보안 등과 같은 미래 핵심 가치 산업군에 대한 원천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여 보안기술 개발 주도 및 지원 예정
- (위성 보안 분야) 냉전 시기에는 국가 간의 첩보와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위성에 대한 안보와 보안성이 중요하였으나 최근에는 나라별 인공위성을 수십에서 수백대씩 보유하는 있는 가운데 위성에 대한 임의 해킹으로 운영에 대한 다양한 불편함을 주고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대형 인명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위성의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R&D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양자컴퓨팅 보안 분야)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국가 간중요 보안 시설 내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며, 초거대 AI 또는 고화질의 12K 이상의 영상분석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연산에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R&D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주요 R&D 분야는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암호화 등의 기술개발
- (개인정보 보호·활용 표준화) 개인정보 핵심기술의 국제선점을 통해 개인정보 기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개인정보 분야 연구개발

< 정보보호·활용 기술표준화 핵심기술 >

중분류	핵심기술	내용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구조	- 웹·앱에서 개인정보 동의 요청 절차, 고지 내용 및 구조 등 처리방침의 정보 구조에 관한 표준
	②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신원인증 정보관리 방법	- 블록체인 환경에서 신원인증 처리절차, 신원인증 정보의 수정·삭제 방법 등에 관한 표준
처리 단계별 보호강화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PbD 적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서비스에서 PbD 적용 수준 평가 및 인증 기준정의 표준
	④ 개인정보 파기	- 다양한 응용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파기방법과 요구사항, 파기의 적정성 평가 방법에 관한 표준
	⑤ 클라우드(자원공유) 컴퓨팅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제공자 보호 지침, 클라우드 특화 개인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표준
안전한 활용	⑥ 가명정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가명처리 원칙 및 기준, 절차 및 관리 지침, 안전한 가명처리 환경 구축 방법에 관한 표준
	⑦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 이동형 영상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방법 등에 관한 표준
	⑧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형식 기술 표준	- 정보주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개인정보) 형식과 전송규격과 관련된 표준
	⑨ 메타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 메타버스 이용자 및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이러한 메타버스 상호운용시 보호 요구 사항 표준
	⑩ 생체 의료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 민감정보 개념, 민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민감정보 관리체계에 관한 표준
	⑪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내·외부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표준
	⑫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보호 준칙,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이용 등 단계별 보호 체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자료 : 개인정보위원회, 2023

- ‘개인정보 보호 · 활용 기술분류체계’와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
- ① 국제표준 선점 필요성, ② 기업·시장의 수요, ③ 국민생활 및 산업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안전한 활용) 12개 핵심표준을 선정



자료 : 개인정보위원회, 2023,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표준과 정보보안 기술 표준의 차이 >

■ (세부 사업3) 정보보호 실전형 인재양성

-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구축 및 실습훈련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 충청권 정보보호기업 및 특화산업기업의 개발·관리자에 대한 사이버공격·방어 대응 실습훈련
 - (교육과정 예시) 정보보호제품군 실습 훈련, 실전형 훈련 심화과정 재직자 역량강화 과정

훈련과정(안)			훈련내용(안)	주요교육 방식
① 정보보호 제품군 실습훈련	초급 과정	정보보호 장비 관련 필수 지식	· 네트워크망 구성 이해(DMZ, NAT, VPN) ·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이해(OWASP Top 10)	이론
		정보보호 장비 개요	· 정보보호 장비 소개 - UTM, WAF, SIEM, NAC 등	이론
		UTM	· UTM 개요 · 장비 초기설정, 방화벽 설정 · IPS 설정 / 정책관리 / 로그 확인 / 장비 실습	이론 실습
		WAF	· WAF 개요 / 환경 설정 · 정책 설정 및 관리 / 로그 확인 · 상황별 실습	이론 실습
	중급 과정	장비 활용 실습	· UTM, WAF를 활용하여 단위 공격 기술 탐지 및 차단 실습	실습
		종합실습 1	· 초기 네트워크 보안 설정 · 악성코드 감염 PC분석, 대응 · 워터링홀 공격 발생 원인 파악 및 대응	실습
		종합실습 2	· 웹 어플리케이션 해킹 공격 탐지 및 대응 · 서비스 거부 공격 식별, 대응 · 변조된 보안장비 정책 복구	실습
② 실전형 훈련 심화과정	일방향 침해사고 대응훈련		· 가상 훈련시스템 (상황) 파악 · 침해사고 대응 (방어) · 팀별 훈련결과 토의 · 훈련결과 참가자 종합 토의	실습
	양방향 실전 공방(공격방어) 훈련		· 침해사고 유발 (상황 발생) · 침해사고 대응 (공격, 방어) · 팀별 훈련결과 토의 · 훈련결과 참가자 종합 토의	실습

자료 :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 (기타 프로그램 운영) 기업 멤버십 SW캠프, 시큐리티 아카데미 교육사업, S-개발자(최정예 보안 SW 개발자) 양성사업, ICT 융합산업 보안 인력양성 사업, AI보안 인력양성 사업, 정보보호 NCS 개발사업, 정보보호 진로 교육 등 범부처 연계사업 추진



< 정보보호산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예시) >

Ⅲ. 정책 제언

■ 세종형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정책

● 데이터, 디지털 경제 산업 기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 세종형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방안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세종시는 행정복합중심 도시로서 기존의 산업군이 전무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운영 등으로 4차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산업군의 활성화와 저변확대가 가능
-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 도시로서 이를 통해 다양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1인 기업, 스타트업 등의 신규 기업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으며, 비즈니스의 기회가 높음
-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의 구축과 유통·보급 시 소요되는 다양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방안 발굴과 기획 및 실증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기반 세종형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순환이 가능한 산업군 창출을 위해 B2G 중심의 B2B와 B2C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하단체 등의 이전을 완료한 지자체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허브 역할 수행이 가능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와의 연계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보호 서비스와 기술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
- 이를 위해 세종시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법령과 규제 등을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제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와 기술개발 분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투자로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기업군 육성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세종형 정보보호 표준화 정책과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세종형 정보보호 표준화 정책 수립

- 데이터, 디지털 경제 관련 정보보호 표준화는 국내외 정부 출연 기관, 표준화기관, 표준협회와 관련 기업 등에서 활발히 제정 중이나 전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데이터, 여기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경제의 표준화는 전혀 없는 실정

-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요구되는 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선제적 표준화 선도 모델 도출과 표준화 정책의 수립으로 세종형 정보보호 표준화 모델과 정책이 타 지자체로의 우수사례 전파와 국내외 관련 기술의 선도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종형 정보보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세종형 정보보호 표준화 모델과 정책이 수립 이후 관련 시장과 기술의 동향 파악으로 핵심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미래 5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선제적으로 도출하여야 함
-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하단체 및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가를 통해 도출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과 추진전략의 반복된 검증과 논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허브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정보보호 산업군의 활성화와 기업의 매출 증대, 전문인력 창출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과 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IV. 결론 및 시사점

■ 신규 기반 산업군 창출의 기회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운영

- 기반 산업이 전혀 없는 세종시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 행정중심의 도시로서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하단체 시설과 장비 구축을 위한 건설업, 전산업, 지식서비스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규 인구 유입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군에 대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한 실정
- 최근 정부 중심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부흥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및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운영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허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세종시로서 이는 신규 기반 산업군의 창출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님

● 4차 산업군에 대한 신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 4차 산업군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으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선순환이 가능한 생태계 운영과 선진 운영 사례의 전파 및 국내외 핵심기술 선도와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과의 융합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 존재

●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과 정보보호 기술의 융합

- 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스마트그린융합부문-소재 산업군은 세종시의 미래먹거리로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산업 분야이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군 조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와 핵심 제품이 다수 존재함
- 관련 산업군 별 핵심 제조·생산 기술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무단 유출과 유포 및 사이버보안 공격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막대한 투자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융합형 보안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와 전문 인력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세종형 정보보호 생태계의 저변확대 가능성이 존재

참고문헌

- 정보통신평가기획원(2020), 「ICT R&D 기술로드맵 2025-차세대보안-블록체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 OECD 디지털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관계부처 합동(2022), 「디지털 대전환시대 :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 RESEARCH AND MARKETS(2022), 「Cyber Security Market size 2022-2030」.
- ETRI Insight(2022), 「新정부 ICT 및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분석」.
- 한계레(2023), 「악성코드 제작, 생성형 AI로 더 쉬워졌다... 정부, 대응책 고심」.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년도 통계 자료 인용」.



02

연구개발지원단 NEWS

연구개발지원단(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최신 과학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도내 마약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사회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최신 과학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와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관계자와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관계자 등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개념과 강원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도내에서 진행되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전파하며 효과적인 예방 전략과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치료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소개되었고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중독 실태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쟁우위에 있는 천연물 소재 연구 분야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중독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의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 지역의 마약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10916162269846>

자율주행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자율주행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11월 1일(수)에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부의 자율주행차 세부 R&D 지원전략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 제공 데이터, 경기도형 자율주행 로드맵 도출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향후 경기도 자율주행 클러스터를 위한 통신3사와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인식과 정책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미래차 전환 정책방안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정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8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협업 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도만의 특성을 담은 사업 설계,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향후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년 제1회 대경강원권 연구개발지원단 광역 연계 협력 워크숍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9월 7일(목) 대경강원권 연구개발지원단 역량강화 및 지역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1회 대경강원권 연구개발지원단 광역 연계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광역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단위·분야별 협력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성과 공유·확산을 유도하고 협력 아젠다 발굴 등 연계 수행을 위해 대경강원권 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 추진계획 및 연계·협력 아젠다 발굴 등 대경강원권 연구개발지원단 단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대경강원권 광역 연계 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해 공동의 정책현안 대응 및 협력 방안 도출을 통해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광역 연계 사업 발굴 및 협력 제안 기회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23년도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는 부산 출신 우수과학기술인들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주도 R&D 이행체계 수립(안) 공유와 정책자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자문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제도적 점검과 R&D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기획·운영·관리에 필요한 제안을 위해 개최하였다.

지자체의 R&D 코드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의 필요성과 성과 목표는 수행기관 중심으로 설정하되, 사업기획은 지역 과제와 대학 간 연계성 강화로 자율성 및 차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부산 지역에 특화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도 R&D 이행 체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적 제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원장 구자현)은 12월 12일(화) 대전시청에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덕특구 재창조는 '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혁신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명품 공간으로 대전환하여 지역 균형발전 실현 주도를 위한 추진 사업이다.

위원회에서는 1부 '23년도 대덕특구 재창조 성과보고와 2부 '24년도 추진계획으로 진행된다. 1부 성과보고에서는 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우선추진과제 성과 보고, K-켄달스퀘어 기본구상 연구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2부 추진계획보고에서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 조승래 국회의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 16명이 추진계획 및 대덕특구 재창조 관련 의견을 나눈다.

'23년 제2차 서울지역과학기술혁신 미래자문위원회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9월 19일 '23년 제2차 서울지역과학기술혁신 미래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미래자문위원회에는 미래자문위원회 위원과 산업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 핵심 산업(로봇, AI, 바이오, 에너지 환경)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아젠다 후보군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실제 지역 산업에 실효성을 갖는 방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산업 현황을 반영하고, 중앙 정부 및 서울시 정책·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아젠다가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본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시 핵심 산업 육성 방안의 아젠다 및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 정책1, 2차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정책분과)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최된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목표 및 전략, 추진과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에 근거해 5년의 주기로 수립되며 환경분석, 향후 5년의 사업 조사, 중점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혁신협의회 위원들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기술역량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 성과환류가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 '화이트바이오산업'발전을 위한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와 간담회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최근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협회장 Stefan Barot)와 지역의 대표 화이트바이오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여주시,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남해화학, 이폴리텍, 금성필름, 위사이클, 화진산업 등 지역 대표 화이트바이오 기업 11개사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전남테크노파크 공태웅 센터장은 전남 지역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및 기술 현황,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서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인 스테판 배로(Stefan Barot)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유럽 화이트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 하였고, 현재 유럽의회에서 추진중인 환경 규제법안 중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한 법(PPWR)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대표 기업과 유럽바이오플라스틱 협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산업 확정성 및 국제 친환경 인증 현황 등을 토론했고,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수출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대표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관련 제품을 친환경 바이오소재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생분해성 해양부표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사업화를 완료했다.

또한, 화이트바이오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항공유 실증, 바이오 납사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 생분해성 폐 플라스틱을 이용한 에너지(바이오 가스)전환 등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기술을 중점 육성을 추진 중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은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912010003316>

2. 지역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지역주도 R&D 마중물 지원 사업·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뱅크 사업 중간 점검 실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올해 4월에 선정된 지역주도 R&D 마중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주관기관과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뱅크에 선정된 10개 기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도 R&D 마중물 과제의 경우는 8.31.부터 9.1 이틀간 진행했는데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올바른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업목표 대비 연구 달성도를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사업 사용의 적절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였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외부 평가위원과 동행하여 중간점검의 객관성을 높였다. 강원도 주력 분야(바이오, 신소재, ICT·헬스케어)의 전문 위원이 동행하여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고 수행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두 사업은 4월에 시작했지만 사업비 지급이 늦어 전체적으로 약 30%대의 사업비 집행률을 보였고 사업 목표대비 연구 달성도는 대부분 일정에 맞추어 적절히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뱅크를 수행하고 있는 10개 기관은 8월 28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수혜기관/기업 연구책임자 및 연지단 실무자 18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사업 기획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업비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였고 타 기관의 기획 아이템과 협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견 교류도 가졌다. 기획뱅크 수행 기관 또한 사업비 소진이 미진하여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위 두 사업은 강원도 자체 R&D 사업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년간 좋은 실적을 창출하여 수행 기관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6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최종 보고회를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워크숍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지단)은 지난 9월 연지단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2023년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점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및 NFT 가치평가, 사업화 관리지원 등 총 3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금번사업에서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사업성과 관리, 수요자기반 설문조사, 리빙랩 기반 실증 평가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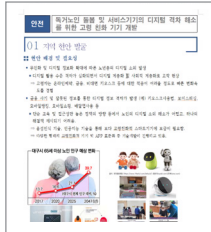
금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성과관리 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김영집 원장이 참석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각 세부 및 기관 별 책임자의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수요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향후 기술사업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신민철 단장은 2년차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없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금번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웹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지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대구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형(R&D) 과제기획 지원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자생적 지역R&D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과제기획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역의 민원자료 분석과 지역사회 시민단체 및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분석을 통해 총 6개 분야(▲안전, ▲에너지, ▲복지, ▲교통, ▲환경, ▲폭염)에 9개 지역현안정의를서를 도출하였고, 이에 도출된 지역문제 현안정의를서를 기반으로 과제기획 공고모집을 통해 약 2개월간 과제기획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공고모집에는 과학기술 주요 분야별로 총 10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개 과제(안전 2건, 복지 2건, 에너지 1건, 교통1건)를 선정하여 기획지원 등 지역 내 연구개발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향후 기획컨설팅 운영 등 고도화를 통해 대구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중앙정부 대항과제 수주나 지역 미래신산업 발굴 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기업 후속지원(R&D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대구연구개발지원단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기업 지원사업」
후속지원(R&D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모집**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기업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을 완료한 기업
 - ※ 2023도 지원사업을 포함한 최근 5개년(2019~2023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 ※ 사업종교일 이후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및 전문연구사업자 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3. 12. 중순
- 지원내용 : 기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작성 내용의 고도화 및 수정·보완으로 연구개발과제 수준 확률 극대화
 - ※ 기업별 11 전문가 제정을 통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은 대구TP 전액 부담
 -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컨설팅은 제외하며, 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수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매칭, 모인서약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계획 및 기술 유출 방지 예정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면 검토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후속지원(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성 및 적정성
 - 기업의 차별성 및 구체성
 - 기업의 R&D 수준/비상 및 선정 가능성 등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접수 9. 12. ~ 10. 12. 대구TP	→	신청평가 10월 중 대구TP	→	결과통보 및 컨설팅위원 배정 10월 중 대구TP ↔ 기업	→	컨설팅 진행 ~ 12. 중순 컨설팅위원 ↔ 기업
-------------------------------------	---	-----------------------	---	--	---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였다. 이번 후속지원을 통해 기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작성 내용의 고도화 및 수정·보완으로 연구개발과제 수준 확률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기업별 1:2 전문가 매칭으로 기술분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분야로 2명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수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매칭이 된다.

이번 후속지원을 통해 중앙부처 등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지원조건 또는 우대가점이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지역 연구소 설립기업의 정부R&D 사업 수주 확대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와 R&D 및 산업투자 성과제고를 기대한다.

대전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시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도시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5개 도시 대표단 20여 명과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5일에는 기조연설, 주제발표, 참가도시 대표자들의 혁신 정책 사례발표 및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6일에는 포럼에 참가한 도시대표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도시대표자회의에 참여한 대표단들은 대전시가 제안한 글로벌 도시 간 협력플랫폼 구상안인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채택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대전시는 내년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하여, 과학기술 기반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혁신 정책 공유, 전주기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교류 등 다양한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248>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 체계 마련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9월 동남권 지역 간 과학기술 혁신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 및 과제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연지단이 총괄하고, 울산·경남 연지단과 권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본 착수회의에서 협의체 구축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조사·분석, △정책·현안 연구, △사업 발굴·기획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지역 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연계가능한 R&D분야 도출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조사분석 분과 회의에서는 동남권 과학기술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별 역량 분석을, 정책연구 분과에서는 권역별 산업구조 변화와 부울경 산업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사업발굴 분과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현안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발굴 아이템을 논의하였다.

향후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 협의체는 그간 각 분과별로 진행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12월 초 성과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과학기술/산업이슈 발굴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지단은 지난 10월 부산 R&D주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부울경 과학기술/산업이슈 발굴 포럼을 개최하였다.

(*부산 R&D주간은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과학기술 소통의 장이다.)

이번 포럼은 현재 수행 중인 ‘부울경 산업구조 진단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부울경 정보통신산업 고객 특성과 디지털 전환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부울경 ICT 서비스업의 특성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부울경이 공동으로 자원이나 공간배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지역 ICT산업 특화전략 추진과 지역 주력산업으로서의 디지털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지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 지속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세종시 설립 속도 불린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난 11월 9일 세종시청에서는 중입자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중입자 암치료센터 세종시 설립 포럼’을 열고 관계 분야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기조 강연은 ‘중입자치료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박우윤 충북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우윤 교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수요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입자 치료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우윤 교수는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입자 치료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적정 인구와 접근성, 인력양성 등에 관해 세밀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류근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입자 암치료센터 세종시 설립이 갖는 의의와 미래 가치’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 나선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은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설립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중입자치료시스템 도입 시 고려할 점 등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특히 김용배 부원장은 중입자를 활용한 암치료센터의 국내 첫 가동에 들어간 연세암병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력 양성과 제도적 지원, 급여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한,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는 ‘세종시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중부권 암센터 유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진단하며 국가적 관점의 암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각오로 중부권 암센터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도 중입자치료기 도입 필요성으로 중입자치료기 국산화 등 산업발전 도모와 연구·치료·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조무현 다원시스 고문은 양성자가속기 기반의 붕소중성자포획치료(ABNCT) 시스템 개발 경험을 토대로 방사선 의·과학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건넸다.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지원단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과제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이다. 시는 이번 포럼에 나온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검토해 향후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종의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 세종시청 - 보도자료

울산 이슈발굴 및 정책제안 네트워크회의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광역시 연구개발 정책 및 과제 발굴을 위해 울산연지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이슈 및 기술수요를 토대로 기획된 R&D 과제의 지자체 지원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전략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 이슈 및 정책을 공모사업과 연계 및 유치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생태계의 수준 향상 및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 이하 전남TP)는 태국 방콕에서 8월 17, 18일 양일간 전라남도 주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남지역사업평가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태국 에너지워크”에 참석하여 전남 에너지기업의 태국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강상구국장과 전남TP 이상엽본부장, 임청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이창훈 한국스마트그리드국장, 최태원 전남에너지산업 수출기업협의회장, 김용성 코트라 태국 무역관장, 나랏차이 태국태양광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테크노파크는 태국의 대표적인 투자기업 B.GRIMM POWER와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실무기간 간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하였다.

이어서 금번 행사에 참여한 전남에너지기업 7개 사, 광주에너지기업 4개 사의 사업설명회와 태국 내 기업·기관 등과 다자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제안,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이번 행사에선 총 98건, 917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100만달러의 합의각서(MOA) 1건, 1892만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 12건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전남TP와 기관들은 17일 전남태국국가연구위원회를 방문하여 수소, 풍력, 태양광분야 공동연구와 실증단지에 대한 기술협력, 전문가 인력교류 등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분야 실무협의회 구성 등 큰 틀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는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전남TP 이상엽 융합기술지원본부장을 필두로하여 한국전력 김송환 에너지밸리추진실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안아람 전략기획실장 등은 태국 우수명문대학인 쫄랑롱큰 대학교를 방문하여 Dr. Hoonchareon 교수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MVDC, LVDC 등 직류전송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협의하였으며 향후 공동 연구개발 등을 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의 주관기관인 (주)엘시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ICT기업으로 한국 내 시장의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에너지워크에서 자사에서 개발한 전력거래 플랫폼을 선보였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된 전문인력을 확보,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CMVL과 인니, 말련 시장 개발을 위한 협력사 발굴과 구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823010006585>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신규 과제 기획 TF운영

전북연구개발지원단



2023년 전북과학기술위원회는 R&D 발굴 체계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해 첨단바이오, 방위산업 등을 포함한 10대 연구회로 운영중이다.

10대 연구회는 혁신성장산업(탄소융복합소재, 첨단모빌리티, 지능형 기계조선, 에너지수소), 사회혁신(탄소중립, 문화관광콘텐츠, 재난안전), 신산업(첨단바이오, 방산, 첨단전략(이차전지, 반도체))으로 구성되며 2023년 총 55개 사업 1조 6,365억원 규모 과제가 기획됐다.

금년도 11월까지 총 150번의 기획회의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를 초청한 기획과제 자문검토위원회가 12월 초까지 모든 연구회에서 완료될 예정이다.

향후, 연구회별 기획보고서가 도출된 이후 차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과제 컨소시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가 연구개발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과학기술세미나 - 미래전지 산업정책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과학기술위원회와 연계하여 미래전지 분야 산업정책 세미나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이차전지 PD를 초청하여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부의 배터리 전략과 초격차프로젝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도내 이차전지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신규사업 기획 아이템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되며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혁신 허브 구축, 국제적 인재양성 기반구축,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중에 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과제 선정 및 지원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Kick-off 회의 자료

<23. 10. 6(금), 전략기획팀>

1. 사업 목적

☐ 서울시 지역·도시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서울 지역의 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 서울시 및 중앙정부 R&D정책 등 추진 당위성에 부합하는 R&D(인프라 포함)사업 또는 과제 기획

* 연은 기관주축사업(SOQ), 비R&D성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서울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사업’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고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R&D기획 과제 5개를 선정하였다.

금번 사업에 선정된 R&D과제의 산업 분야는 핀테크 및 AI 분야로 과제 특성과 기획제안자의 수요를 반영해 전문가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11월 말까지 전문가와 기업 간 수차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제안한 과제가 실효성 있는 R&D사업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및 기술 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화 추진 전략 설계 등 넓은 범위에서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시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지역 수요 기반의 R&D 과제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충북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육성 국회 토론회’ 성료

충북연구개발지원단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연구개발지원단), 미래양자융합센터와 함께 개최한 ‘충북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육성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전폭적 지원을 위해 변 의원이 발의한 ‘양자기술육성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외의 양자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충북 양자생태계 육성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변재일 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정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변 의원은 개회사에서 “충북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첨단산업단지 등 양자산업을 이끌 기반이 있고, 클러스터까지 구축하면 새로운 지역과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충북이 양자산업에서 앞서나갈 전략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서는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이 ‘국가 양자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 양자기술과 선진국을 비교하며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국내정책의 미래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기웅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충북 양자 과학기술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이 중앙정부에도 선제적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사광가속기,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국가 양자기술발전의 물리적 허브구축과 연구인력 보급에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보도자료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42>

3.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제3회 화이트바이오 혁신 포럼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화성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3회 화이트바이오 혁신 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개최된 포럼은 화이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사업단과 경기도내 바이오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사업단의 1단계 연구 성과 공유 및 지식공유 세미나와 기업 매칭 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화이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사업단의 일원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간의 모니터링과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연구개발지원단 글로벌 프로그램 연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수도권 연구개발지원단(경기, 서울, 인천) 협의체 중심으로 수도권 연계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국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수도권 연계형 첨단산업 발굴 및 지역 혁신거점 연계 방안 등 신규 정책 구체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창업 및 산학협력 등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위한 기관방문을 진행하였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 인천 연구개발지원단과 함께 협력 가능한 첨단산업 선정 및 혁신거점 연계 등 신규 정책 구체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TP, 「경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지역협의회」 발족회의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1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버서더에서 경상남도 관계자 및 지역 ICT 기업과 수행기관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경남 전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를 내재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발족회의를 통해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 △경남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보보호 정책 및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단계적 진흥계획 논의, 초광역(부산 울산 경남) 협의회를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및 공동협력 사업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 기반의 정보보호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보보호 기업지원과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산업과 정보보호의 융합을 실현해 지역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20277>

경남도-경남TP, 개방형 제조운영체제 기술개발 글로벌 인증 취득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IIC* 3분기 회원 컨퍼런스”에서 IIC 테스트 드라이브 인증을 획득했다.

* 2014년 설립되어 159개 회원사(21년 기준)가 소속되어있는 글로벌 민간 조직단체로, 사물인터넷(IoT)의 채택을 가속화하여 산업, 조직, 사회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해당 성과는 경상남도가 '20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IIC에 등재된 테스트 드라이브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달성한 성과이다.

*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글로벌 표준기반의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IIC테스트베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신기술이 통합된 솔루션을 배치하고, 테스트하여 타당성을 인증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출된 표준 요구사항 공유를 통해 원활한 글로벌 표준화를 이뤄지게 한다.

이번에 통과한 경남TP의 테스트 드라이브는 AAS* 적용을 통해 복잡한 기업 맞춤형 5G네트워크 특화망** 구성의 어려움을 단순화시켜 빠른 생산라인 교체·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 설비, 부품 등 공장에 있는 제조자산을 디지털로 구현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한 표준체계로, 지멘스(SIEMENS) 등 글로벌 기업도 제조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용 중

** 기존 이동통신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최첨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IIC컨소시엄의 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공유와 협업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경남 사업추진 컨소시엄은 행사를 통해 테스트베드 및 자동차부품업체 5G공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경남 지역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 실무회의에 참석하였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 동향 파악과 경남 지역의 핵심 사업인 제조운영체제의 우수한 성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IIC 등재를 통해 글로벌 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은 “경남TP의 IIC 등재와 글로벌 기술 협력은 경남 지역의 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2622&kind=>

초정밀 공작기계 개발 기술협력 활성화 MOU 체결

경남연구개발지원단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추진단(이하, 경남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은 독일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장에서 세계적인 기술기업 지멘스 및 국내 초정밀 공작기계 제조사 스멕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소부장 글로벌 기술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멘스 모션컨트롤사업부 백광희 상무, 경남TP 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 (주)스멕 최영섭 대표를 비롯해 관련 유관기관 및 소부장기업(디엔솔루션즈, 칸에스티엔, 한국기계연구원 등) 등으로 구성된 EMO 2023 소부장 공동참관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Digital Twin 기반 제조공정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5축 가공기 국산화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정밀 가공장비개발 기술 및 인력지원 △CNC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류 안정 공급 및 서비스 연계 △소부장산업 신뢰성 인증 및 사업화 지원 △초정밀 공작기계분야 전문인력양성협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511.6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협력모델 기반 초정밀 공작기계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소부장특화단지 재직자 인력양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초정밀 공작기계 및 핵심부품류 등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기술고도화를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 김승철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남도 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른 경남 주력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경남TP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920500340>

2023 유연인쇄전자 유망기술 성과공유회 개최 결과보고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18일(목)~20(금)유연인쇄전자 핵심 기술인 소자, 소재, 장비 등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23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KFPE)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연·산 전문가들의 기술 발표 및 토론 자리를 통해 지역의 성과 공유·확산을 유도하고 유연인쇄전자를 중심으로 융합학술·기술의 정보교환 및 학술 활동 논의, 연구과제 수행 주체 간의 연구성과 공유·확산·활용 논의 등 전국 유연인쇄전자 관련 학·연·산 전문가들 및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전체 참여연구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연구단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유연인쇄전자 관련 학문을 발전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글로벌 벤치마킹 추진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회장 신민철)에서는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장 지역인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의 총 14개 연지단이 참여한 금번 국외연수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주요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여 지역 R&D 협력체계 마련 및 국가 간 과학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과학기술정책, R&D사업화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기술혁신청, RISE, KISTA 과학기술단지, 핀란드의 국립기술연구센터 등을 방문하여 북유럽의 선진화된 과학기술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체험하였다.

특히, R&D의 핵심 트렌드의 ICT, 탄소제로,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실증단지 탐방을 통해 관련기술 최신 동향 파악하고, 연구개발지원부터 사업화, 산업육성까지 사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선진 연구개발 혁신네트워크와 프로세스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금번 국외연수가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R&D과제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강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주도의 R&D 추진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다자간(유럽)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R&D 지원사업 후속지원 간담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 R&D 지원 사업」의 과년도 지원과제 포함 26개 과제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추가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6개 기업에서 R&D 지원정보 등에 대해 수요를 응답하였고, 개발기술의 후속과제 연계를 통한 기업·기관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업의 보유 또는 연구개발 기술에 맞는 기관을 매칭하여 기업지원 기관 지원사업 및 기업 협력 분야의 설명과 주관기업 지원 필요사항 또는 기업과 기관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술 고도화 뿐만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최신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R&D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연구혁신(R&I)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2023년 대전시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효율성·효과성 강화방안 마련

2023. 10. 30.

OISTEP 대전과학기술산업지원센터
Ok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Support Center

대전은 지역 예산 투자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대전시 투자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연구혁신(Research & Innovation) 사업의 기획-평가-환류 체계(투자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처음으로 대전시 예산 사업 15개를 대상으로 사업별 성과진단을 수행하였고, 이어 2023년은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올해 성과진단의 특이사항은 사업별 수행기관 및 수혜 기업 심층 면담을 통해 사업 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성과진단은 근거를 기반으로 효율적·효과적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중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성과진단 결과는 사업별 사업 담당자 검토를 거쳐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은 대전시 특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개선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사업 대상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사업 자체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3차 대전·호남권 광역연계 협의회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이하 대전연지단)은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제주에서 「제3차 대전·호남권 광역연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전을 비롯해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 연지단 광역연계 협의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광역연계사업 기획 필요성과 주체 간 협력 실행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제주 지역의 신산업 육성 핵심기술인 사용 후 배터리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등 현장감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대전·호남권 광역연계 협의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7.13(목), 부산, 2차는 9.5.(화) 광주에서 각각 개최하여 광역 연계 강화와 지역 간 산업육성 협력 방안을 탐색해왔다. 이 결과는 ‘23년도 공동 결과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광역연계협의회 1일차_토론>



<광역연계협의회 1일차_현장탐방>



<광역연계협의회 2일차_회의1>

세종테크노파크, 2023 세종축제 ‘세종과학놀이터’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난 10월 ‘2023년 세종축제’에서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는 세종시 지역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지역과학문화 주체발굴 및 활동 지원’과 ‘지역특화프로그램’의 수행기업들이 ‘세종과학놀이터’의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다. 세종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1년부터 세종 지역의 과학문화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과학문화 정책 수립, 다양한 과학문화 주제 발굴·지원,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학문화 주체발굴 및 활동 지원(우리동네 과학클럽, 소셜리빙랩(우리동네집현전))’ 수행기업(코드스튜디오, 로보티즈키즈랩)이 마련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디지털미디어아트, △인공지능+로봇체험, △피지컬 코딩 체험이 있으며, ‘지역특화프로그램’ 수행기업(홍익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름다운 우리말 램프 체험, △월간 세종과학문화의 한글날 기념 고전문학특강 ‘세종과 천문학’,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과학콘서트 ‘과학소통원정대’ 등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문화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2023 세종축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세종 시민들의 과학문화 소양 증진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세종지역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과학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세종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세미나 - 미래전지 산업정책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과학기술위원회와 연계하여 미래전지 분야 산업정책 세미나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이차전지 PD를 초청하여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부의 배터리 전략과 초격차프로젝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도내 이차전지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신규사업 기획 아이템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되며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혁신 허브 구축, 국제적 인재양성 기반구축,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중에 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 전북 그린바이오 우수 기술마켓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그린바이오 전후방산업 관련한 도내 11개 기관과 함께 정읍에 소재한 (재)농축산융합생물사업육성지원 센터에서 24일 ‘2023 전라북도 그린바이오 우수 기술마켓’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그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확산과 더불어, 그린바이오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에게 도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 출품 및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이전 협약식 및 기업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기업간의 협력의식 고취 및 기술이전 후보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이후 우수기술 설명회 및 기술이전 연계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화망 그린바이오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제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21회 제주미래가치전략 포럼 개최 - (주제) 친환경 신소재, 버섯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8월 23일, ‘친환경 신소재, 버섯’을 주제로 제21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제주의 버섯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환경친화 신산업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관련 기업 소속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버섯 균주 수집을 통한 종다양성 확보와 활용 연구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버섯 균사체 활용 제품화를 위해 제품의 균일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제주에는 국내 보고된 버섯 중 약 38.7%에 해당하는 841종이 분포함에 따라 제주의 버섯을 활용·연계할 수 있는 소재산업과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8641&ref=A>
(KBS제주: 제주는 버섯 자원의 보고... 신산업 육성해야)
<http://pdf.jejumail.net/20230825/2023082506.pdf>
(제주매일: 제주버섯,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 충분)

제22회 제주미래가치전략 포럼 개최 - (주제) 분산에너지와 섹터커플링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1월 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글로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분산에너지와 섹터커플링’을 주제로 한 제22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에너지공단, 한양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섹터커플링 연관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써 당위성은 확보되었으나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가격 유연성, 열 인프라 허가 절차 및 규정 간소화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주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비처와 인재 확보,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pdf.jemin.com/20231101/2023110101-01010101.pdf>
(제민일보: 테크노파크, 미래가치전략포럼 개최)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454>
(뉴제주일보: 제주 분산에너지 산업 선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제22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 (부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 대응전략 수립-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도는 9월 5일, 충청남도 주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주최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백승욱 부장과 육군사관학교 정근홍 교수, 두 분의 발제와 2명의 토론자를 통해, 양자 산업 부상에 따른 국내·외 현황 파악 및 향후 충남도 양자산업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양자기술은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의 하나로, 의료, 금융, 국방, 제조 등 주요산업 분야에 접목 및 융합돼 국가 경제발전 및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대표적 미래기술이다.

토론자들은 지역특화 및 지역산업 기반의 양자산업 육성방안 도출 및 정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전략 방안을 심도있게 제안했다.

충남도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은 “국방양자연구시설 유치 및 KRISS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충남도도 퀀텀점프를 할 수 있도록 예타사업 등 정부사업을 follow-up하고 접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본 포럼을 통해 도출된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충남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c2P6jzs0UDg?si=pkc4LLfn0FX0lsH8>

보도자료 <http://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321>

제23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 (부제) 충남 과학기술 전략별 발전방향 및 전략 수립-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 지식 공유·확산 및 단·중장기 과학기술 비전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내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제23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에서는 ‘충남 과학기술 전략별 발전방향 및 전략 수립’을 주제로,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전략 수립계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충남도 중점분야 및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충남도의 5대 전략은 ▲제조산업 과학기술 혁신, ▲6차 산업·바이오·헬스 과학기술 고도화, ▲디지털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실증기술 선도, ▲과학기술 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각 전략별 전문가들이 관련 충남도 사업을 발굴하여 소개했다.

본 포럼을 통해 충남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기술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최신 기술 논의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신규 사업 창출 아이디어 및 충남도 단·중장기 과학기술 비전 수립 방향 설정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0niGXSI54hk>

충북과기원, 2023 충청권 과학기술혁신 자문단 출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R&D 거점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김상규, ‘충북과기원’)은 18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2023 충청권 과학기술혁신 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위원은 총 91명으로 ICT분야 6개 분과(ICT융합, 태양광·신에너지, 기후·환경,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별 다양한 전문가로 꾸러졌다.

충북선도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일환인 ‘2023 충청권 과학기술혁신 자문단’은 지역 과학기술분야 내·외부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신규 정책, 사업 기획과제 등에 대한 발굴과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충북과기원은 전체 자문단 중 정책기획 관련 15명의 자문위원을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충북 과학기술정책과 추진전략 설명’ 기초강연이 진행됐다.

각 분야별 자문위원의 정부 동향 공유와 충북 과학기술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충북과기원이 산학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향후 이들은 지속적인 정책기획 발굴과 신규사업 실무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를 구현하게 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충청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먼 길 와주신 자문위원 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책 아젠다 발굴, 신규 기획사업 발굴 등 자문위원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선도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권역별 데이터 취합·분석 및 혁신자원 간 연계 추진 △지역 특성이 반영된 R&D 사업기획과 초광역 협력 과제 발굴·추진 △초광역 연계형 협력 협의체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도자료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714>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연구보고서 및 GBSA Daily Report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Policy Focus(연구보고서) 1건과 GBSA Review(산업·기술·정책 동향) 1건 발간 및 GBSA Daily Report를 배포하였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제언’, ‘경기도 제조업 현황과 제조혁신 정책제언’의 내용으로 Policy Focus와 GBSA Review를 작성하였으며, 과학기술·제조혁신·지역/경제·벤처/스타트업·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의 정보 제공을 위한 GBSA Daily Report를 발송하였다.

발간물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

제23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애포럼) 개최 - (부재) 충남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남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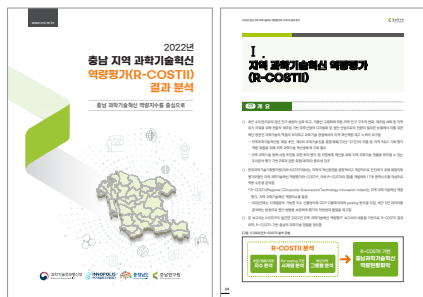
협의회를 통해 충남도의 ▲권역별 수소에너지그리드 밸류체인 조성 전략,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전략 수립을 주제로, 총 2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이슈페이퍼는 충남도 수소 및 스마트팜 산업 육성 정책 현안 대응 및 산·학·연 간 신규사업 발굴협력 제안의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 충남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결과분석

- 충남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중심으로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2021년부터 매년 KISTEP이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R-COSTII 기반 충남의 과학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충남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충남의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는 6.691점으로,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17개 광역시·도 중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R-COSTII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92%로, 17개 광역시·도 연평균 성장률(-2.267%)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보인다.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부문지수는 2018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네트워크, 환경 부문의 지수는 감소했다.

이에 충남의 전반적인 R-COSTII 향상을 위해서 약점지표 부진 원인인 ‘지역 인구구조 변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재’, ‘대학 역량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대학 역량강화’, ‘지역 과학문화 확산 활동’ 등 중·장기적 지수 개선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

참고사이트 <https://www.cni.re.kr/main/search/view.do?mid=72&docId=1023DE0021>





04

R&D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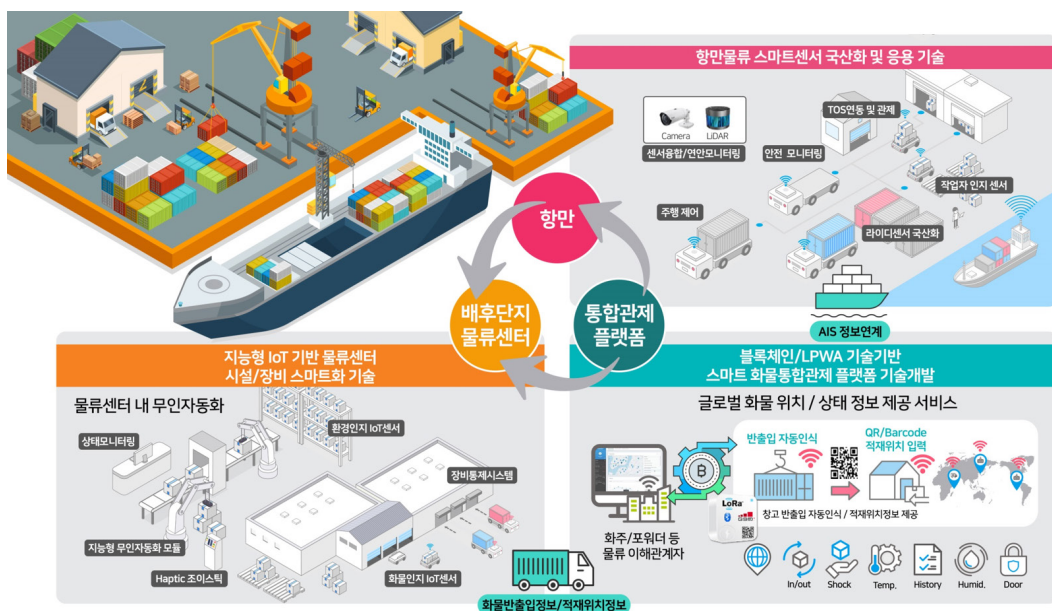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과제 추진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과제 추진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ICT 융합기술에 기반하여 스마트 항만물류를 선도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8억원(정부 및 지자체예산 기준)을 지원하며, 부산항만공사를 주관으로 지역 유관기관 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 개념도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축으로서, 지리적인 강점과 함께 우수한 항만인프라와 배후단지를 갖추고 있으나, 세계 주요 항만들이 선도하는 항만시스템의 스마트화에 맞춰 적극적인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 및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지역 항만물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본 사업을 유치하여 부산항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만과 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장비뿐 아니라 입출항 선박과 운송화물 상태 정보 등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안전 및 자동화 위한 스마트 센서의 국산화와 응용기술 ▲지능형 사물형인터넷(IoT) 기반 물류센터 내 시설과 장비의 스마트화 ▲블록체인-LPWA (저전력광역) 기반 스마트 화물 통합관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2020~2022) 연구개발을 통해 세부과제별 주요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2023~2024)는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주력을 두고 있다. 1단계에서는 IoT센서를 기반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으로 구현하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될 시 실시간으로 물류센터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정성을 높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어 스마트항만 물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효과적인 연구수행과 우수한 사업성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의 과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04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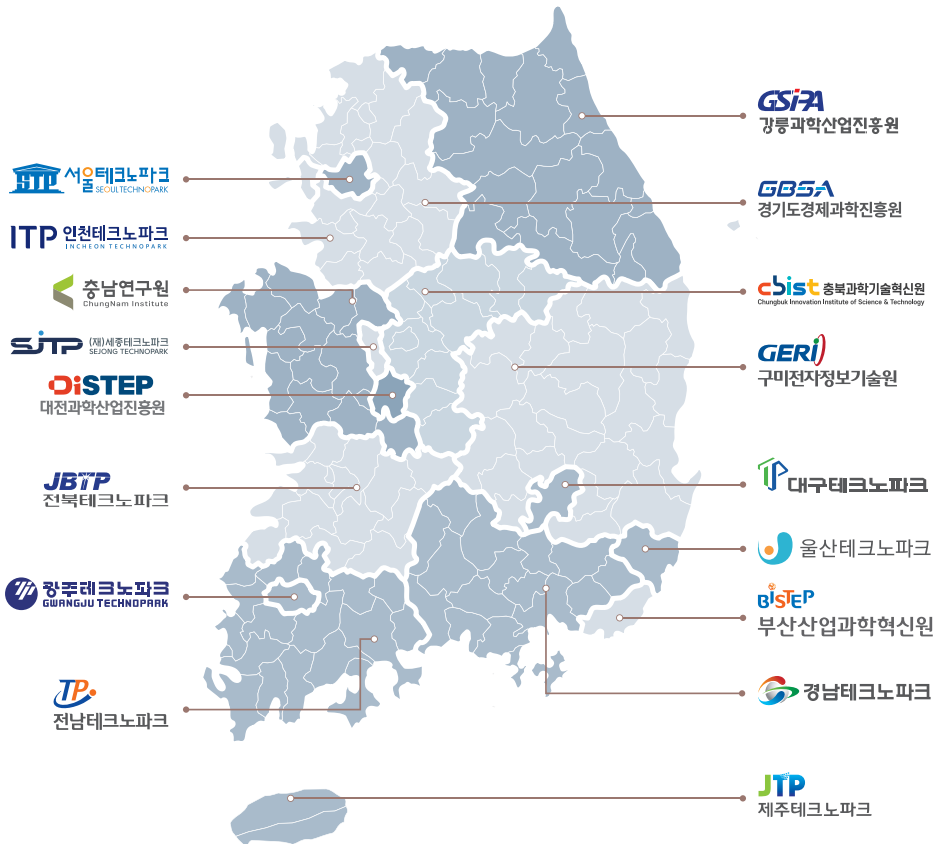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974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51.795.502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8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